조선의 書目을 통해 본 동아시아의 한문 서적 교류

張 伯 偉*

一. 王室書目
二. 地方書目
三. 個人書目
四. 史志書目

국외의 漢文書籍을 연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자는 이전에 두 가지의 원칙을 제기한 바 있다. 곧 實證과 綜合이다.[1] 이 두 가지 원칙을 한문서적 교류 연구에 적용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바꿔 말해 어떤 자료들을 사용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일본 학자인 大庭脩曾이 「流轉日本漢籍之研究方法與資料」라는 논문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2] 이에 뒤이은 연구로는 필자의 「清代詩話東傳略論稿」가 있는데,[3] 이 논문에서는 해당과제의 연구방법과 참고문헌에 대해 설명하면서 書目, 史書, 日記, 文集, 詩話, 筆記, 序跋, 書信, 叢書, 印章 등을 개괄하여 검토했지만,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다.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한문서적 교류의 범위는 역사상의 中國, 朝鮮, 日本, 琉球와 越南 등의 지역을 포괄한다. 본고는 이들 지역에서 전개되어온 한문서적 교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류의 경로와 유형 및 영향, 그리고 그 심층적인 요인까지 고루 탐색하고자 하며, 아울러 당시의 정치, 경제, 종교, 사상 및 이를 통해 형성된 취미와 기호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교류'는

* 中國 南京大學

1) 張伯偉, 2006「域外漢籍研究 : 一個嶄新的學術領域」『學習與探索』第2期, 159~160면.

2) 大庭脩曾, 1987「流伝日本漢籍之研究方法與資料」『第一屆中國域外漢籍國際學術會議論文集』, 臺灣聯合報文化基金會國學文獻館, 481~492면.

3) 張伯偉, 2006『域外漢籍研究集刊』, 中華書局, 383~490면.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류'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中朝(韓), 中日, 中琉, 中越의 교류뿐만 아니라, 朝·日·琉·越 등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교류 역시 포함된다.

물론 본고에서 이러한 교류 양상 전부를 전면적으로 모두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동아시아 한문서적 교류의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나마 이 문제를 논하고자 하니, 독자들의 비평과 보충 및 질책을 바란다. 본고는 동아시아 한문서적 교류 연구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조선의 서적목록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書目은 藏書와 板刻 혹은 판매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서목을 통해 시대상황이나 지역분포 및 교류한 인물 등의 정보를 고루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서목은 매우 많은데, 필자는 그 중 이전에 일별한 80여 종의 서목 중에 26종을 뽑아 王室書目, 地方書目, 史志書目, 個人書目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朝鮮時代書目叢刊』을 편찬한 바 있다. 이러한 서목들은 동아시아 역사상의 한문서적 교류와 소장 및 판각 등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본고는 이 책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학계 내 많은 연구자들의 질정을 바란다.

一. 王室書目

본고에서 「王室書目」이란 왕실에서 소장하고 있거나 왕실에서 직접 편찬된 것들을 가리킨다. 그 가운데 일부 서목은 왕실의 명령을 받아 편찬한 것도 있고, 왕족에 의해 직접 편찬된 것도 있다.

왕실도서는 국가 차원의 장서이기 때문에, 왕실서목을 통해 中國本 장서의 전체적인 양상을 고찰할 수 있다. 正祖 5년(1781)에 편찬된 『奎章總目』은 왕실서목의 대표적인 것으로, 正祖의 『群書標記』 「命撰一」, 『奎章總目』 卷4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비부(祕府)의 장서(藏書) 중에서 화본(華本)은 열고관(閱古觀)에 수장(收藏)되어 있고, 동본(東本)은 서고(西庫)에 수장되어 있다. …… 천하에서 서적을 중시한 지는 매우 오래되었다. 내가 즉위한 첫 해인 병신년(1776)에는 내원(內苑)에 규장각(奎章閣)을 두어 모훈(謨訓)과 도적(圖籍)을 보관하게 하였다. 얼마 후에는 이전에는 없던 책으로

> 현재에 구할 수 있는 구류(九流)·백가(百家)의 서적 수천백 종을 사들이고 곧 각신(閣臣) 서호수(徐浩修)에게 지시하여 이 서적들의 목록(目錄)을 편찬하게 하였다. …… 경부류(經部類) 도서가 60종, 사부류(史部類) 도서가 120종, 자부류(子部類) 도서가 148종, 집부류(集部類) 도서가 279종이다. 차후로 사들이는 책도 구하는 대로 이 목록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4]

이른바 「華本」은 中國本이고 「東本」은 朝鮮本이다. 『奎章總目』에 수록된 것은 화본서목이다. 이 서목을 통해 정조 초년에 왕실에 소장된 중국본 서적의 전체적인 상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奎章總目』에 수록된 책들 중에는 중복되어 표시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經部의 『十三經註疏』, 『周易本義折中』, 『書傳彙纂』, 『洪武正韻』, 史部의 『晉書』, 『宋書』, 『梁書』, 『後魏書』, 『後周書』, 『南史』, 『五代史』, 『遼史』, 『金史』, 『元史』, 『資治通鑑綱目發明』, 『續藏書』, 『文獻通考』, 集部의 『范文正公集』, 『遜志齋集』, 『陳白沙集』, 『黃離草』, 『樂善堂集』 등은 전부 2부씩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일견 사소한 듯 보이지만, 당시의 장서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왕실서목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중국에 가서 책을 구입했는지를 알 수 있다. 예컨대 정조시기에 편찬된 『內閣訪書錄』은 구입할 도서의 목록이다. 『정조실록』 5년 6월 甲申條에 의하면,

> 당(唐)나라와 송(宋)나라 때의 고사(故事)를 모방하여 『방서록(訪書錄)』 2권을 찬술하여 내각(內閣)의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조사하여 구매하게 하였다. 무릇 산경(山經)·해지(海志) 가운데 비밀스럽고 희귀한 책들로서 옛날에 없던 것으로 지금 구비되어 있는 것이 무려 수천·수백 종류나 되었다.[5]

胡應麟의 『少室山房筆叢·經籍會通』 권1에 "옛날에 희귀한 책들을 구했을 때, 모두 조목이 있었다. 수나라 때 『闕書錄』, 당나라 때 『訪書錄』, 송나라 때 『求書錄』이 있었다."[6] 라는 기록이 있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의 고사를 모방하여"란 바

---

4) 張伯偉, 2004 『朝鮮時代書目叢刊』 第2册, 中華書局, 1172~1173면. "秘府藏書之所, 華本在閣古觀,東本在西庫. 是書所錄者, 閣古觀之華本也.……書籍之重於天下也尚矣. 予於丙申初載, 肇建奎章閣於內苑, 以奉謨訓, 峙圖籍. 旣又購求九流百家之昔無今有者幾數千百種, 遂命閣臣徐浩修著之為目.……凡經之類六十, 史之類一百二十, 子之類一百四十八, 集之類二百七十九. 繼此而購得者, 將隨得隨錄也."(이하 『朝鮮時代書目叢刊』의 인용은 『서목총간』으로 줄여서 표현하고, 면수만을 기록함)

5) 『朝鮮王朝實錄』 第45册(국사편찬위원회, 1955년 影印), 249면. "仿唐宋故事, 撰『訪書錄』二卷, 使內閣諸臣按而購貿, 凡山經海志, 秘牒稀種之昔無今有者, 無慮數千百種."

6) 胡應麟, 『少室山房筆叢』(上海書店出版社, 2001), 10면. "前代懸購遺書, 咸著條目. 隋有『闕書錄』, 唐有『訪

로 이와 같은 일이다. 서목을 보면 전부 『규장총목』에 없는 책이고, 經部 134種, 史部 64種, 子部 124種, 集部 63種이다. 왕실의 購書目錄이기 때문에 왕실의 취향을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패관소설은 없는데, 정조시기에 많은 대신들의 문장이 패관 소설의 문체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러한 책들을 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것이다. 이미 구입한 것도 서고에서 없앴다. 『정조실록』 11년 10월 甲辰條 備邊使進使行賫去事目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모든 좌도(左道)의 불경(不經)한 말과 이단(異端)의 요탄(妖誕)한 말에 관계되는 서적과 잡술(雜術)의 방서(方書)는 일체 엄히 막되, 역관과 삼사신(三使臣) 할 것 없이 몰래 사는 일이 있으면 즉시 적발하여 불사르고 장계(狀啓)를 올리며, 범한 자는 중형에 처할 것이다.[7]

> 15년 11월 戊寅條:
> 내가 소설(小說)에 대해서는 한 번도 펴본 일이 없으며, 내각에 소장했던 잡서도 이미 모두 없앴다.[8]

> 16년 10월 甲申條:
> 이러한 폐단의 근원을 아주 뽑아서 없애버리려면 애당초 잡서(雜書)들을 중국에서 사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다.[9]

> 19년 7월 甲戌條:
> 저 기괴하고 사설로 가득 찬 책은 그야말로 모조리 태워 재로 만드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내부(內府)에 소장된 것 가운데 패관소설(稗官小說)로 이름 붙여진 것들은 옛날 편적(編籍)에 들어 있었던 것까지 아울러 서가 사이에서 없애버리도록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지만, 가까운 반열에 출입하던 사람들 중 이런 책을 듣고 보지 않은 자가 없었다.[10]

『西庫藏書錄』 중 『燕肆書目』 한 권이 있다. 이 책은 연행 인원들이 중국에서

書錄』, 宋有『求書錄』."

7) 『朝鮮王朝實錄』 第45冊, 673면. "凡係書籍涉於左道不經, 異端妖誕之說及雜術方書, 一切嚴防. 毋論譯官及三使臣所屬, 如有潛貿之事, 卽其地摘發燒火狀聞, 犯者置之重辟."

8) 『朝鮮王朝實錄』 第46冊, 258면. "予於小說一不批覽, 內藏雜書, 皆已去之."

9) 위의 책, 349면. "如欲拔本而塞源, 則莫如雜書之初不購來."

10) 위의 책, 590면. "伊奇詭詖邪之書, 正合為灰為燼. 內府之藏, 凡以稗官小說為名, 則並與舊在編籍, 祛之丌架之間者, 已為數十年, 出入邇列之人, 莫不聞覩."

필사한 서목일 가능성이 있다. 책을 구입할 때 지침서로 사용하던 것이다. 청나라 姜紹書의 『韻石齋筆談』(卷上)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조선 사람들은 책을 가장 좋아한다. 사신들이 올 때마다, …… 조선에 없는 책을 구하러 대낮에 시장에 가서 각자 서목을 써서 사람만 만나면 책을 문의하여 돈을 아끼지 않고 구입하였다.[11]

셋째, 왕실서목을 통해 중국 서적의 조선본이나 비평서들도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에서 「華本」과 「東本」으로 분류하여 西庫에 소장한 책은 전부 「東本」이다. 장서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찾기 편함을 위해서이자, 귀천(貴賤)과 경중(輕重)을 나누는 뜻도 담고 있다. 徐有榘(1764-1845)는 "조선본이 투박하여 중국본과 같이 소장할 수 없다. 중국본 소장처의 동쪽이나 서쪽에서 별도로 한 칸의 집을 짓고 소장하면 된다. 책장을 쓸 필요는 없고 책꽂이를 이용하여 꽂으면 될 뿐이다."[12]라 하였다. 「동본」은 저자별로 분류하지 않고 간행지역별로 분류하였다. ≪西庫藏書錄≫은 바로 이러한 서목이다. 그중에 적지 않은 중국 서적의 조선본과 중국 서적에 대한 조선 사람의 주석과 편찬 저작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의 분류 중 「中國文集」이란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諸葛亮의 『武侯全書』 등 19가지 문집이 수록되어 있고 이러한 문집은 조선에서 꽤 인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문인이 중국 서적에 대해 수행한 주석과 평론 등은 經書類, 儒家類, 禮書類, 文章類, 詩家類 등에 집중되어 있다. 文章類와 詩家類 중에 『兩漢詞命』, 『歐陽文抄』, 『蘇文抄』, 『柳文抄』, 『王臨川抄』, 『杜詩批解』, 『香山三體詩』 등이 있다. 특히 『八子百選』은 정조가 茅坤의 『唐宋八大家文鈔』 중에서 친히 뽑은 것이고 "한유의 문장 30편, 유종원의 문장 15편, 구양수의 문장 15편, 소순의 문장 5편, 소식의 문장 20편, 소철의 문장 5편, 왕안석의 문장 7편, 증공의 문장 3편 등 모두 백편을 뽑았다. 전부 참되고 순수한 문장이다."[13]라고 하였다. 정조가 "당송의 고문 중에 가장 순정한 것은 팔대가의 문장이다", "고로 한 명도 더할 수 없고 한 명도 뺄 수 없다. 귀유광이 六家로 축소하였고 儲欣之가 十家로 증가하였지만 전부 通論이 되

11) 文淵閣 『四庫全書』 本(臺灣商務印書館 影印), "朝鮮國人最好書, 凡使臣入貢,……在彼所缺者, 日出市中, 各寫書目, 逢人便問, 不惜重直購回."

12) 『林園經濟志·怡雲志』 권6, 圖書藏訪·藏弆條(보경문화사, 1983, 387면), "東本粗重, 不可與華本同藏. 就華本藏庋之所之東或西, 別起一閣而藏之. 不必櫥藏, 祇列架插峙耳"

13) 『群書標記』一(『서목총간』 제2책, 955면), "昌黎文三十篇, 柳州文十五篇, 六一文十五篇, 老泉文五篇, 東坡文二十篇, 潁濱文五篇, 臨川文七篇, 南豐文三篇. 滿百而止, 皆所謂醇乎醇者也"

지 못했다."라 하였다. 그가 백 편의 명문을 뽑은 것은 '문학의 전범'을 하층 백성에게까지 보급하고자 해서이다.[14] 따라서 그 이본은 굉장히 많다. 『서고장서록』에는 14가지 서로 다른 종이로 인쇄된 판본이 있다. 만약 『大畜觀書目』, 『寶文閣冊目錄』, 『書香閣奉安總目』, 『鏤板考』, 『各道冊板目錄』, 『增補文獻備考』 등의 서목이나 판목의 목록을 연결해보면 이 책이 보급된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왕실서목을 통해 조선시대 왕궁에서 중국 통속소설이 유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燕山君 시대(1495-1505)에 이미 중국소설을 대량으로 구입한 바 있다. 예컨대 『剪燈新話』, 『嬌紅記』, 『麗情集』 등이 그것이다. 선조조(1568-1608)에 『包公案』 한 질을 부마에게 하사한 적이 있고, 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1618-1714)는 숙명공주와 같이 『水滸傳』를 읽었다고 한다. 숙종조(1675-1720)에는 『三國志演義』가 가장 유행하였는데, "인쇄하여 널리 판매하고, 집집마다 애독하여 과거 시험장에서 시험문제로 출제되기도 하였다."[15] 영조조에 이르러 통속소설을 애독하는 것은 남녀를 막론하고 이미 일반적인 세태가 되었다. 蔡濟恭(1720-1799)은 『女四書序』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근래 부녀자들이 유독 패관소설을 좋아하고 그러한 책도 날마다 증가하여 수천 종까지 이르렀다. 상인들이 베끼고 빌려주어 이윤을 남겼다. 부녀자들은 견식이 없어서 장신구를 팔거나 빚을 내고 다투어 빌려가 소일거리로 삼았다.[16]

또 李學逵(1770-1835)의 기록에 의하면,

> 이 지방에서는 『三國演義』를 구연할 수 있는 것을 능사로 삼고 집안에서 『事文類聚』를 소장하여 희귀한 보물로 삼았다.[17]
>
> 이 지방에는 서적이 너무 없어서 瞿存齋의 『剪燈新話』를 책상 위의 보물로 보고 羅貫仲의 『三國演義』를 집안의 비밀 소장품으로 삼았다.[18]

---

14) 위의 책, 954면.

15) 安鼎福, 『星湖僿說類選』 권9상(명문당, 1980, 278면), "印出廣布, 家户誦讀, 試場之中, 擧而為題."

16) 『樊巖集』 권33(『韓國文集叢刊』 제236책, 75면. 이하 『문집총간』으로 약칭), "竊觀近世閭閻之競以為能事者, 惟稗說是崇, 日加月增, 千百其種. 傖家以是淨寫, 凡有借覽, 輒收其直以為利. 婦女無見識, 或賣釵釧, 或求債銅, 爭相貰來, 以消永日."

17) 『與書』, 『洛下生集』 10책, 『因樹屋集』(『문집총간』 제290책, 364면), "此鄉則以口誦『三國演義』為能事, 家藏『事文類聚』為稀玩."

18) 『答書』(위의 책, 365면), "此鄉苦無書籍, 以瞿存齋『剪燈新話』為丌上尊閣, 羅貫仲『三國演義』為枕中秘藏."

『金甁梅』도 영조 51년(1775) 연행 사절단의 首譯 李諶이 구입하였다. "이 책은 아주 비싸다.", "가격은 白銀 1량이고 전부 20책이며 판각은 정교하다."[19]라고 했으니, 중국소설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大畜觀書目』은 정조 8년(1784)에서 정조 20년(1796)사이에 편찬된 것으로[20] 많은 중국 통속소설들이 수록되어 있고, 이로써 당시 왕실 장서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여기에는 『宋百家小說』, 『說鈴』, 『紅白花傳』, 『包龍圖公案』, 『今古]奇觀』, 『剪燈新話』, 『拍案驚奇』, 『女仙外史』, 『皇明英烈傳』, 『續英烈傳』 등이 수록되어 있고, 『鏡花緣』, 『金甁梅』, 『情史』, 『醒世恒言』은 2부씩 있으며 『紅樓夢』, 『補紅樓夢』은 3부씩 있다. 또한 諺文으로 번역된 작품도 존재한다. 예컨대 『型世言』, 『東漢演義』, 『後水滸傳』, 『續水滸傳』, 『續英烈傳』, 『高皇后傳』, 『三國志[演義]』, 『古今烈女傳』, 『西漢演義』, 『大明英烈傳』, 『玉嬌梨』, 『拍案驚奇』 등이 그것이다. 이 목록들은 明淸小說史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목의 기록에 의거하여 우리는 중국의 소설이 조선으로 유입된 정확한 시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紅樓夢』이 언제 조선으로 유입되었는지는 일반적으로 李圭景(1788-?)의 『五洲衍文長箋散稿』 권7 "小說辨證說"에 의해 정조 24년(1800) 전후라는 학설[21]이 있었지만, 이는 유일한 기록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의심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大畜觀書目』의 기록에 따르면 『홍루몽』은 정조 20년 전에 유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목의 기록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왕실서목을 통해 조선과 일본, 월남의 교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承華樓書目』에 수록된 것은 憲宗(1834-1849)이 감상한 書畵 작품들로, 그중에는 『日本人墨牛畵』, 『倭畵』, 『日本皇山老人畵』, 『越南阮登淸額字』 등이 있다. 『규장총목』 중 經部 "四書類"에서 倪士毅 등은 『四書輯釋章圖大成』을 저록(著錄)하면서 특별히 "日本板"이라고 주석으로 강조하고, 해제에서 이 판본의 의미를 설명했다.

> 삼가 해설하건대 『浙江遺書總錄』에서도 이 책을 수록하였는데 『泰伯』, 『子罕』, 『鄕黨』 三篇이 빠졌다. 대개 永樂 연간에 『大全』을 반포한 후에 과거시험이나 私塾선생

1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권7(동국문화사영인본, 1959, 230면), "其書絶貴", "直銀一兩,凡二十册, 版刻精巧".

20) 이 책은 『奎章閣志』를 수록하고 있는데 해당 책은 정조 8년에 완성되었고, 또 『東國文獻備考』 102책을 수록하고 있는데 영조 46년(1770)에 완성되었다. 정조 6년(1782)에 李萬運에게 補續하라고 하여 20년에 완성하여 『增訂文獻備考』로 이름을 고쳤다. 이 서목은 추가로 수록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전에 이 서목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史部에서는 이 서목을 영조 말년에서 정조 초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21) 閔寬東, 1998 『中國古典小說在韓國之傳播』, 學林出版社, 264-265면 참조.

> 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전부 『大全』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輯釋』을 알지 못한 지 거의 백여 년이 되었다. 浙江은 고대 명가의 遺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元刊本은 한 부만 남아있고 이미 실전된 『魯論』 三篇이 海外에서 유전되어 이제 倪氏의 완전한 책을 보게 되어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22]

이 책은 『四庫全書』「存目」에 수록되어 있다. 邵章의 『增訂四庫簡明目錄標註』에서 일본 文化 9년(1812)에 원나라 至正 2년의 日新書堂本에 의해 출판된 판본을 언급한 바 있지만, 『규장총목』은 정조 5년(1781)에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일본판"이 더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중국에서 구입한 것인지 일본에서 구입한 것인지 傍證자료가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규장총목』에 기록된 책은 대부분 중국에서 구입한 것이니, 이 책 또한 일본에서 중국으로 유입되고 다시 중국에서 조선으로 유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곧, 이 서목은 아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二. 地方書目

본고에서 정의하는 '地方書目'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하나는 지방정부의 冊版目錄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 鄕校, 書院, 寺刹의 장서목록이다.

책판목록을 통해 중국 서적이 조선의 각 지방에서 翻刻된 상황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서적이 민간에서도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儒家類, 讖者類, 醫家類, 文學類의 책들이 주를 이루며 대체적인 취향은 실용성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考事撮要』로 보면 鄭亨愚와 尹炳泰 편찬의 『한국의 책판목록』[23]에 13종 판본이 수록되어 있고, 만력41년(1613)전의 4종 판본이 전부 『책판목록』에 첨부되어 있다. 4종 판본을 종합해 보면, 많이 판각된 책은 儒家類의 『孝經』,[24] 『小學』,[25] 『大學』,[26] 『呂氏鄕約』[27]이다. 讖者類의 『千字文』,[28] 醫書類는 方書를 중심으

---

22) 『서목총간』 제1책, 62-63면. "謹按『浙江遺書總錄』亦載此書, 而缺『泰伯』, 『子罕』, 『鄕黨』三篇. 蓋自永樂頒行『大全』, 而朝廷之取士, 塾師之教徒率用『大全』為主, 故學者不知有『輯釋』, 殆數百餘年矣. 浙江乃古家遺書之所萃, 而只此元刊一本, 已失『魯論』三篇, 則流傳海外之殊域, 得見倪氏之完書, 豈非幸歟."

23) 지금까지 가장 완비한 책판목록이다. 보경문화사, 1995.

24) 黃海道 遂安, 江原道 淮陽, 三陟, 全羅道 錦山, 全州, 井邑, 玉果, 羅州, 寶城, 慶尙道 醴泉, 善山, 慶州, 昆陽, 巨濟, 平安道 平壤, 咸鏡道 會寧 등 16곳.

25) 京畿道 水原, 忠淸道 淸州, 黃海道 海州, 谷山, 鳳山, 江原道 春川, 全羅道 錦山, 全州, 南原, 咸平, 光州,

로, 특히 『救急方』[29]이 주를 이룬다. 文學類에는 주로 도연명과 당송 명가의 책이 제일 많으며, 단행본의 명문 중에는 『赤壁賦』[30]와 『歸去來辭』[31]가 가장 많다. 이는 중국 서적이 조선의 민간에서 유통되는 일반적인 사례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책판목록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失傳된 책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송나라 때의 『名賢詩話』(즉 『唐宋分門名賢詩話』)는 유형별로 편찬된 가장 오래된 詩話이다. 중국에서 실전된 지는 오래 되었으나, 『考事撮要·冊板目錄』에 의하면 慶尙道 尙州에 이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이 책에 관해 후대에 남겨진 유일한 기록인 듯하다. 李宗準(仲鈞)이 성종22년(1491)에 지은 『唐宋分門名賢詩話·跋』에 의하면 이 책은 李克墩이 慶尙監司로 재직할 때 尙州 牧使인 姜用烋로 하여금 간행하게 한 것이고 성종에게 진상한 것이다. 『성종실록』에 의하면, 성종은 홍문관의 대신들에게 "역대의 연호와 인물, 출전 등을 간략하게 주석하여 진상하라"라 명했다 한다. 당시 홍문관 부제학 金諶 등이 상소를 올려 성종이 詩學에 관심을 두는 것을 비판하였다. "『詩話』와 같은 책은 전부 괴상하여 탄식할 만한 것이고 겉만 화려할 뿐 우스운 내용이요", "전하께서는 마땅히 음란한 소리와 미색처럼 멀리 해야 합니다. 심야에 읽을 수 있으니 내부에 소장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전에 언급한 책들을 전부 외부에 소장해야하니 이로서 전하의 수양 훈련을 더욱 강화시켜 신하들이 아첨하는 길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종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만약 왕이 마땅히 이와 같은 책을 볼 수 없다면 오직 경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냐?"[32]라고 힐문하였다. 이를 통해 이 책은 계속 왕실에 소장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판은 비록 임진왜란 때 없어졌지만, 다행히 책은 보존되어 있다. 비록 낙장이 존재하지만, 필자는 이 책의 규장각 소장본을 정리하여 500여 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책이 중국으로 돌아갈 수

昌平, 慶尙道 安東, 大丘, 昆陽, 平安道 平壤 등 16곳.

26) 忠淸道 忠州, 林川, 黃海道 海州, 遂安, 江原道 原州, 全羅道 全州, 井邑, 淳昌, 順天,慶尙道 善山, 星州, 慶州, 平安道 平壤, 咸鏡道 會寧 등 14곳.

27) 全羅道 錦山, 全州, 茂長, 羅州, 順天, 慶尙道 善山, 晉州 등 7곳.

28) 江原道 旌善, 平海, 全羅道 高山, 錦山, 茂長, 南原, 淳昌, 求禮, 光州, 同福, 寶城, 長興, 慶尙道 榮川, 安東, 比安, 義城, 永川, 盈德, 慶州, 山陰, 昌原, 晉州, 平安道 平壤, 咸鏡道 咸安 등 24곳.

29) 忠淸道 淸州, 江原道 原州, 全羅道 全州, 南原, 慶尙道 晉州, 昆陽, 陜川, 平安道 平壤 등 8곳.

30) 黃海道 谷山, 全羅道 錦山, 茂長, 南原, 慶尙道 豊基, 義城, 星州, 永川, 晉州, 昆陽, 平安道 平壤 등 11곳.

31) 黃海道 海州, 全羅道 全州, 慶尙道 慶州, 平安道 平壤 등 4곳.

32) 『成宗實錄』 24년 계축 12월(『朝鮮王朝實錄』 第12冊, 457면), "『詩話』 等書爲怪誕不經之說, 浮華戲劇之詞", "殿下當如淫聲美色而遠之, 不宜爲內府秘藏, 以資乙夜之覽. 請將前項諸書, 出付外藏, 以益聖上養心之功, 以杜人臣獻諛之路", "若曰人君不宜觀此等書, 則當只讀經書乎".

있게 하였다.[33]

민간에서 유통된 책은 실용성을 중시하고 이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양수와 소식의 문장이 중국과 조선에서 보편적인 환영을 받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그들의 문장 중에서 척독을 뽑아 『歐蘇手簡』을 편찬한 것은 구양수와 소식의 척독을 전범으로 삼아 공부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원나라 때 杜仁傑의 서문이 있고, 조선시대 내내 수많은 번각본이 나왔다. 崔錫鼎의 『歐蘇手簡跋』에 의하면,

> 척독은 진나라 때에 성행하였고 六代에 더 널리 퍼졌다. 그러나 이들 척독은 문체가 너무 纖麗하여 한계가 있었다. 雅正과 순수함, 淸新함과 기굴함, 억지로 수식하지 않고 저절로 법도에 맞는 것은 송대의 구양수와 소식 이외에 없다. 옛날 사람들이 이 둘을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도 어찌 이와 같은 생각에서가 아니었겠느냐. 후대 사람들이 書와 疏의 體格을 배우고자 한다면, 마땅히 여기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34]

『考事撮要·冊板目錄』을 통해, 이 책의 책판이 충청도의 청주와 홍주, 황해도의 곡산과 경상도의 예천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도책판』 晉州下에서도 이 책의 책판을 기록하였다. 이로서 이 책이 여러 번 인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수록된 서목은 『西庫藏書錄』과 『淸芬室書目』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왕실서목이고, 후자는 개인서목이다. 두 문헌에 따르면, 이 책은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임금까지 애독하였다. 『단종실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藝文大提學 尹炯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여러 책들을 모두 백 번씩 읽었으나, 『楚詞』와 『歐蘇手簡』 만은 단지 30번 정도 읽었을 뿐이다."[35]이는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책에 대한 세종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官學과 私學으로 나뉘어 있다. 관학은 太學과 四部學堂과 鄕校이며 태학과 사부학당은 서울에, 향교는 지방에 있다. 사학은 書院이다. 관학이든 사학이든 모두 상당한 수량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관학의 서적

33) 『稀見本宋人詩話四種』(江蘇古籍出版社, 2002年版)

34) 『明谷集』 권12(『문집총간』 제154책, 75면), "尺牘盛於晉時而溢於六代, 然類傷於纖麗組織, 求其沖雅而醇粹, 淸遒而奇邁, 不蕲乎繩削而自合乎規度者, 莫如宋之歐, 蘇二公. 古人之鈔成一編, 豈無其意, 而後之欲觀書疏體格者, 宜於此得之矣."

35) 『端宗實錄』 원년 6월 戊戌(『朝鮮王朝實錄』 第6冊, 599면), "予於諸書皆百讀,但 『楚詞』 與 『歐蘇手簡』 三十遍而已" 徐居正의 『筆苑雜記』 권1에는 세종이 이 책을 '千百遍' 읽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과장된 것이고 실제는 아니다.

은 주로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이며 사학의 서적은 주로 자비로 구입하거나 판각한 것이었다. 그중에서 賜額書院은 나라에서 하사받을 수도 있었다. 이 상황은 그 학교의 서책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종실록』 36년 5월 정미조에 의하면,

> (白雲洞書院)이 건축공사가 시작했을 때 땅을 파서 銅器 300여 근을 얻었다. 이것으로 서울에서 책을 사서 서원에 소장하였다. 경서뿐만 아니라 정자와 주자의 책도 없는 것이 없다.[36]

서원의 장서는 程朱理學에 관한 책을 위주로 하였는데, 서원의 서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백운동서원의 장서는 다음과 같다.[37]

周易大全 拾肆卷	周禮 柒卷	大學衍義 拾貳卷	眞西山心經 貳卷
春秋附錄大全 拾柒卷	大學 壹部	名臣言行錄 拾陸卷	伊洛淵源錄 貳卷
(春秋)胡傳大全 柒卷	(大學)或問 壹部	自警編 柒卷	朱子語類 伍拾玖卷
(春秋)胡傳小全 肆卷	中庸 壹部	通鑑 拾伍卷	左傳大全 貳拾參卷
禮記大全 拾陸卷	(中庸)或問 壹部	文選 拾伍卷	韓昌黎集 拾陸卷
(禮記)唐板小全 拾卷	論語大全 貳件各柒卷	楚辭 貳卷	柳子厚集 拾參卷
詩大全 玖卷	孟子大全 貳件各柒卷	文章軌範 貳卷	宋鑑 拾陸卷
(詩)大文 貳卷	(孟子)大文 貳卷	儷語編錄 貳拾卷	博物志 壹卷
書大全 玖卷	近思錄 貳件各四卷	小學 貳件各伍卷	續博物志 壹卷
(書)諺吐 捌卷	性理大全 參拾陸卷	東國通鑑 貳拾玖卷	樊川集 肆卷
(書)大文 壹卷	朱子大全 柒拾卷	韻府群玉 拾卷	宛陵集 壹卷

36) 『朝鮮王朝實錄』 第18冊, 466면. "(白雲洞書院) 當初開基時, 掘地得銅器三百餘斤, 貿書冊於京師而藏之. 非徒經書, 凡程, 朱之書, 無不在焉."

37) 周世鵬, 『竹溪志』 권4(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위와 같은 서목의 가장 말미에는 "嘉靖甲辰歲藏書合錄五百卷"라는 한 줄의 문장이 덧붙여 있다. 이것이 嘉靖 23년(1544) 백운동서원의 장서 상황이다. 정주이학에 관한 책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불교나 도교에 관련된 책은 전혀 없다. 이것은 대개 조선서원 장서의 일반적인 특징일 것이다.

서원에서 자비로 구입한 책뿐만 아니라, 하사 받은 책도 마찬가지다. 『嶺南各邑校院書冊錄』에서는 전문적으로 「玉山書院」의 장서를 기록하였다. 그 중에서 『禮記』, 『周易』, 『詩傳』, 『書傳』, 『論語』, 『孟子』, 『中庸』, 『大學』, 『春秋』, 『性理大全』, 『朱子語類』, 『國朝儒先錄』, 『朱子大全』, 『御製大學續或問』, 『御定朱書百選』 등 15가지는 宣賜本이다.[38] 내용으로 보면 서원에서 자비로 구입한 책과 일치하다.

自購本과 宣賜本은 대부분 조선본이지만, 때로 중국본도 있다. 예컨대 백운동서원서목 중의 "(예기)당판소전[39]"이 바로 중국본이다.

서원은 책을 소장했을 뿐만 아니라 판각하기도 했다. 즉 서원은 한문서적 전파의 사명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점은 徐有榘의 『鏤板考』에도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책판해제목록인데, 책판의 출처가 주로 관청, 서원, 사찰과 개인으로 나뉘어 있다.

來源	御撰	御定	經	史	子	集	總計
官署	27	99	41	50	129	107	453
書院		1	19	25	18	105	168
寺刹	3	3	11	13	22	86	138
私家				2		17	19
總計	30	103	71	90	169	315	778

관청은 서울과 지방 팔도를 포함하여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책판 수량에 있어 1위를 차지하지만, 서원 역시 2위를 차지하여 그 비중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鏤板考』는 정조 20년(1796)에 완성되었고 때는 이미 조선왕조의 후기였다. 적지 않은 서원이 당쟁이나 파벌과 사족의 영향을 받았다. 인조조 林墰이 상소를 올려 서원이 "어진 인물과 덕행을 숭상하는 대의에서 私黨으로 타락하였다."[40]고 질책하였고, 영조 또한 "당의 분쟁이 대다수 서원에서 일어났다."[41]고 비판하기도 했다.

38) 『서목총간』 제5책, 2290~2292면 참조.
39) '小'는 마땅히 '大'로 해야 한다.
40) 『仁祖實錄』 권45, 28년 8월 己未(『朝鮮王朝實錄』 第35冊, 191면), "尊賢尚德之義轉成私黨"
41) 『英祖實錄』 권127 附錄 『行狀』(『朝鮮王朝實錄』 第44冊, 543면), "黨議分爭, 多起於書院"

이는 당시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원의 장서와 판각도 비슷한 성향이 있었으며 특히 개인문집의 증가는 이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42]

三. 個人書目

개인서목은 개인장서의 기록이다. 조선시대 개인장서의 규모가 비록 중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많이 소장한 사람은 3~4만권 정도를 소장했다 한다. 洪翰周(1798-1868)의 『智水拈筆』 권1에 의하면,

> 우리나라가 작지만 沈斗室의 "績堂"에 장서가 거의 四萬권에 달하고 趙秉龜, 尹致定 두 분의 집에도 三, 四萬卷정도가 소장되어 있다. 기타 鎭川縣 草坪里 李慶億의 "萬卷樓", 徐有榘 斗陵里의 八千卷이 그 다음이다. 대개 서울에 만권 정도의 책을 가진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우리나라도 (조선조)초기에 여러 서적의 판각을 수행하였고 …… 경향(京鄕)의 관리와 평민들도 조금만 글을 알면 번번이 인쇄하여 집에 보관하였다.[43]

여기서 언급된 沈象奎(斗室), 趙秉龜, 尹致定, 李慶億과 徐有榘 등은 전부 당대의 저명한 장서가였다. 權橃과 裵三益, 金誠一 또한 유명한 장서가였다. 그러나 중국과 비교하면 조선의 장서목록은 극히 적고 현재 필자가 조사한 것도 몇 가지뿐이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金侙(1597-1638)의 『海東文獻總錄』, 洪奭周(1774-1842)의 『洪氏讀書錄』, 李仁榮(1911-1950이후)의 『淸芬室書目』(1944년에 완성) 등이 있다. 또 阮堂 金正喜(1786-1856)는 친필로 쓴 『장서목록』도 있지만, 완질이 아니라서 일본 藤塚鄰이 증보하여 『金秋史舊藏書目錄一斑』[44]이란 책을 편찬하였다.

개인서목의 특징은 전부 해제가 첨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함된 정보도

---

42) 李春熙, 1989 『朝鮮朝의 敎育文庫에 관한 硏究』, 경인문화사, 4장 '書院疊設의 弊端과 後期의 書院文庫' 참조.

43) 『智水拈筆』(아세아문화사, 1984, 6~7면), "雖以我國之褊小, 沈斗室公之"績堂", 殆過四萬 ; 趙游荷秉龜, 尹石醉致定二公之家,亦不下三, 四萬卷. 其他鎭川縣草坪里華谷李相慶億之"萬卷樓", 徐楓石有榘斗陵里之八千卷, 又其下也. 蓋京師故家有書之至千萬卷者, 指不勝摟……我國自國初亦行鋟梓,……京外朝士吏民之粗卞魚魯者, 動輒印出而家蓄之."

44) 京城帝國大學文學會 編, 1935 『東方文化史叢考』, 京城: 大阪書號書店, 334~362면 ; 藤塚鄰 著(藤塚明直 編), 1975 『淸朝文化東傳の硏究』, 日本國書刊行會, 507~527면, 附錄二 참조.

비교적 풍부하다. 『海東文獻總錄』은 비록 조선의 문헌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지만, 중국서적에 대한 내용도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우선, "총론"에서 명나라 사람이 高巽의 『三峰集跋』과 『祈順集』의 말을 인용하여 조선과 중국 문화의 긴밀한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 오직 삼한은 箕子의 遺敎가 있다. …… 그러므로 문학과 문장의 흘러내려오는 계통이 중국과 거의 다름이 없어서 자못 다른 나라로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45]
>
> 내가 듣기로는, 문헌을 가지고 있는 외국 중에서는 조선이 으뜸이다. 그 나라 사람들은 유학을 공부하여 경서에 통달하고 공자의 도를 존숭한다. …… 그의 문물과 전장이 중국과 다름없으며,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앞섰다.[46]

예를 들면 "經書類"에는 고려와 조선의 사람들이 중국의 유가 경전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저작이 무려 33종이나 수록되어 있으며, 著者, 主旨, 序跋 등을 상세히 열거하고 참고하기 편하게 기록하였다. 예컨대 『春秋四傳』 下에서는 "전하께서 집현전 유생들에게 명하여 『춘추사전』을 경문에 인용하여 연대의 순서대로 서술하여 비고로 삼겠다."라고 기록하였다. 따라서 성종(1469-1494) 때 『左傳』, 『公羊傳』, 『穀梁傳』과 胡安國의 『傳』을 경문과 같이 합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胡傳』을 중시했는데, "특히 군주와 부친을 존하여 亂臣賊子들을 토벌하는 의리, 춘추의 큰 법을 깊이 얻기 때문에 춘추를 읽는 자가 호안국의 전을 위주로 하되 삼전을 참고해야 된다."[47]고 하였다. 이것은 조선 春秋學의 특색이기도 하다. 아울러 조선학자들의 성리학에 관한 저술도 많이 수록되어 있어 조선유학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책들은 대부분 退溪學派와 관련있는데, 가령 이 시기 조선의 조정에서는 당쟁이 극심하여 金侙이 자신이 속한 東人이 세력을 잃자 자신의 저작에서 퇴계학파의 주장을 표창한 것이 그것이다. 역시 당대의 당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잇는 것이다.

한편 『해동문헌총록』에는 전문적으로 "中國詩文撰述"이란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絲綸全集』, 『絲綸要集』, 『選粹集』, 『八家詩選』, 『香山三體法』, 『半山精華』, 『山谷

---

45) 『서목총간』 제7책, 3411~3412면. "惟三韓之國有箕子之遺敎……是以學問文辭之源委端緖, 與中國殆無以異, 殊非他方所可儷也."

46) 위의 책, 3412~3413면. "余聞外國有文獻者, 以朝鮮為稱首. 其人業儒通經,尊崇孔聖之道.……宜其文物典章不異中華, 而遠超他邦也."

47) 姜希孟 『私淑齋集』 권10, 「春秋四傳跋」(『문집총간』 제12책, 138면), "我廟命集賢殿諸儒引入四傳於經文之下, 敍以年代之次, 以便參考". "尤嚴於尊君父, 討亂賊之義, 深得『春秋』之大法, 故讀『春秋』者, 主胡氏而參以三傳"

精粹』, 『風騷軌範』, 『風騷選』, 『大明一統志詩詠集類』, 『精言妙選』, 『蘇文正宗』, 『選文掇英』, 『續文範』, 『詩學指南』 등이 있다. 그 내용은 본래 중국 것이지만 비평은 전부 조선학자들이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풍소궤범』은 前後集으로 나누어, 前集 16권은 文體별로 분류하고 後集 29권은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한나라·위나라 때부터 원나라 말기까지 고체시를 전범으로 삼은 작품을 찬집하였다."[48] 곧, 고체시를 중시한 것이다. 성현은 『풍소궤범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비교하자면 古詩는 물과 나무의 뿌리이며 원천이다. 율시는 그것의 가지이며 지류이다. …… 대개 고시를 배우고 나서 율시를 공부하는 것이 쉽고 율시를 배우고 나서 고시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 마치 가지와 나뭇잎이 뿌리를 덮을 수 없고 지류가 원천을 상대할 수 없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詩道가 大成하고 대대로 인재가 없지 않았지만, 전부 율시만 알고 고시는 알지 못했다. 그 가운데 비록 고시를 아는 자가 없진 않았지만, 對偶의 버릇을 없애지 못하여 종횡무진의 기개가 없었다. 嫫母의 자질로 西施의 찡그림을 모방하는 것이 실로 오늘날의 고질이며 치료할 수 없는 바이다. 내가 옥당에서 이것의 폐단을 논한 적이 있었고 함께 있던 친구들도 찬동하였다. 이런 바 율시에 있어서 『瀛奎律髓』가 있고 절구에 있어서 『聯珠詩格』이 있는데, 오직 고시만 선집이 없으니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49]

성현은 이 문장을 명나라 成化 20년(1489)에 지었다. 비록 식견이 있는 자는 오래 전부터 조선의 한시 창작이 율시를 중시하여 고시를 멸시하는 폐단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풍소궤범』과 朴嘯皐에 의해 편찬된 이 책의 간략본인 『風騷選』이 있으므로, 이를 "활자로 인쇄하여 대개 아동들이 공부하는 지침서로 삼겠다."[50]고 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취향을 돌려놓지는 못한 듯 같다. 300년 후에 홍량호(1724-1802)는 『與宋德文論詩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내가 일찍이 중국을 유람하여 중국인의 시화를 보고 말하였다. "고려사람들이 율시와 절구를 짓는 것을 좋아하여 고시를 잘 몰랐음이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한다."[51]

---

48) 『서목총간』 제7책, 3892면. "撰集自漢魏至於元季古體詩可為楷範者"

49) 『虛白堂集·文集』 권6(『문집총간』 제14책, 463면), "夫古詩, 譬之水木, 則根本淵源也, 而律乃柯條支派也.……大抵自古而學律易, 自律而學古難. 如枝葉不能庇本根, 支派不能當源流也. 我國詩道大成, 而代不乏人, 然皆知律而不知古. 其間雖有能知者, 未免有對偶之病, 而無縱橫捭闔之氣. 以嫫母之資, 而效西子之顰, 實今日之痼疾, 而不能醫者也. 余嘗在玉堂極論斯弊,同列亦以爲然. 曰律詩則有『瀛奎律髓』, 絶句則有『聯珠詩格』, 而獨無古體所裒之集, 其可乎?"

50) 『서목총간』 제7책, 3893면. "用活字印傳, 蓋為童丱輩指南也"

51) 『耳溪集』 권15(『문집총간』 제241책, 261면), "僕嘗西游中國, 見華人詩話云 : 高麗人好作律絶, 不識古詩.

여기 말한 "중국인의 시화(華人詩話)"는 王士禛의 『漁洋詩話』를 가리킨다. 그리고 또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 우리나라에는 근체시를 숭상하여 문장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미 변려문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綴辭를 말할 때부터 율시와 절구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고풍과 장구는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니 이것을 시라고 할 수 있겠소?[52]

方回의 『瀛奎律髓』와 于濟, 蔡正孫의 『唐宋千家聯珠詩格』은 율시와 절구의 대표적 選本으로, 『風騷軌範』과 더불어 삼대 선본이다. 고체시선본으로서 분류방법도 『瀛奎律髓』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海東文獻總錄』에서 그 목록을 다음과 기록하였다.

> 遊覽類, 地理類, 天文類, 節序類, 宮室類, 顯達類, 閑適類 憂傷類, 宴樂類, 器用類, 文房類, 圖畫類, 懷古類, 人品類, 仙釋類, 蠢動類, 靜植類, 寄贈類, 送別類, 懷訪類[53]

이와 같은 서목은 중국 서적의 조선에서의 전파와 영향을 반영한다.

『洪氏讀書錄』은 洪奭周가 그의 아우인 홍길주에게 편찬해 준 指導書目이다. 이 서목을 통해 우리가 조선 시대 사대부 집안의 장서 규모나 기본 교양 및 지식구조와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고 더불어 중국 전통 경전과의 관계를 탐지할 수 있다. 『홍씨독서록』에서 언급한 한문 서적의 규모는 약 400여 종이고 經史子集으로 나뉘어 있다. 경부는 『역』, 『서』, 『시』, 『예』, 『춘추』, 『사서』, 『효경』, 소학, 악과 총경이 포함되어 있다. 사부에는 사(편년, 기전, 별사를 포함), 야사, 배사(기언, 기인, 기사를 포함)와 지(총지, 예의, 전법, 직방, 예문)가 포함되어 있다. 자부에는 유가, 농가, 의가, 병가, 노가, 법가, 잡가, 수가, 천문가, 수술가, 예술가, 설가, 소설가, 석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집부는 총집과 별집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홍씨가 전부 서적을 통독하지는 않았지만,[54]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의 독서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張之洞의 『書目答問』이 중국 사대부의 기본 독서규

使我顓發辭也."

52) 위의 책, "我東俗專尙近體, 稍知操觚, 已習聯偶 ; 開口綴辭, 便學律絕, 不知古風長句之爲何狀, 是可謂詩乎哉?"

53) 『서목총간』 제7책, 3892면.

54) 史部에 淸代의 『續通典』, 『續通志』, 『續文獻通考』를 수록하여 "三書余皆未及見也" ; 子部 農家 『救荒活民書』, 『荒政農書』와 『康濟錄』의 3종에 대해서 "是三帙皆余所未見"이라고 하였다.

모를 대표할 수 있다면(약 2200종),[55] 이에 견주어 볼 때 『홍씨독서록』은 비교적 양은 적지만 가히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指導書目이기 때문에 매 한 종의 책마다 작자의 비평이 첨부되어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典籍에 대한 域外에서의 반향으로도 볼 수 있다. 예컨대 經部 『易』下에서는 청나라 사람 李光地의 『周易觀彖』과 『周易通論』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론하였다.

> 청나라 사람으로 『周易』을 해설한 사람이 거의 수십 명이나 되지만, 내가 본 것 중 유독 이 두 책만이 가장 순정하다. 청나라 사람들은 대개 정자와 주자를 비방하는 것을 능사로 삼았다. 그러나 유독 이광지만은 한결같이 주자만을 존숭하면서 古義를 참고하였으니 그 자득한 바가 많다.[56]

史部 『四庫全書簡明目錄』:

이 책은 수만 字의 분량으로, 모두 漢學을 비호하였다. 당시에는 바야흐로 주자를 존숭하는 까닭으로 감히 드러내 공격하지는 못했지만, 몰래 헐뜯는 데 있어서는 조그만 힘도 남기지 않았다. …… 오호라! 수천 년의 서적으로 한 시대의 큰 전적을 만드는데 있어, 한 시대의 꺼리거나 피하는 일과 한 사람의 애증이 그 사이 끼어드니 그 일이 정말 어렵도다. 『總目』은 전체 2백 권인데, 전서에서 책은 포함시키지 않고 서목만 남긴 것이 절반을 차지한다. 잘못되고 누락된 것을 이루 다 지적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57]

子部 儒家類 『朱子大全』:

이 책은 集部에 속하지만, 子部로 분류한 것은 선생을 존숭하기 때문이다.[58]

集部 王士禛 『精華錄』:

청나라 사람 중 학문을 논하는 사람은 陸隴其를 추대하고, 문장을 논하는 사람

---

55) 范希曾, 1963 『書目答問補正』, 中華書局, 4면. "『書目答問略例』云 : 所舉二千餘部,疑於浩繁. 然分類以求, 亦尚易盡. 較之汎濫無歸者, 則為少矣(諸生當知其約, 勿騖其多)."

56) 『서목총간』 제8책, 4178면. "清人說『易』者殆數十家, 余所獲見者, 惟此二書為最醇. 清人大率以詆斥程, 朱為能事,獨光地一遵紫陽而參以古義, 其所自得者為多."

57) 위의 책, 4249면. "是書首尾數萬言, 率為漢學右袒, 以時方崇尊朱子, 不敢顯攻, 而陰詆之不遺餘力.……嗚呼! 上下數千年之載籍, 以教一代之鉅典, 而乃欲以一時之忌諱, 一人之好惡參於其間, 亦難矣. 『總目』 凡二百卷刪其書而存其目者又居其半. 舛謬闕漏, 殆不可勝指也已."

58) 위의 책, 4259면. "是書蓋集也, 而編於子者, 尊先生也."

은 汪琬을 추대하며, 시를 논하는 사람은 王士禛을 추대한다. …… 청나라의 吳偉業, 周亮工, 邵長蘅, 宋犖, 施閏章, 王崇簡, 方苞는 모두 문장의 대가라 할 수 있고, 朱彝尊은 온갖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주이존은 문장이 시보다 못하여 학술에 큰 오류가 많으니, 그의 문집은 볼 것이 못된다.[59]

그의 비평 잣대는 대개 정주이학의 존숭유무에 있는데, 『사고전서』에 대한 평론이 특히 투철하다. 홍석주는 책을 비평할 때, 종종 양국의 대비를 통해 중국 서적의 영향과 책 각각의 특징이 드러나게 하였다. 예를 들면 경부에서 조선 申義慶의 『喪禮備要』를 다음과 같이 비평하였다.

> 이 책은 한결같이 『家禮』를 따르되, 時宜에 맞게 만들었다. 200년 사이에 위로는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래로는 閭巷에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한 本씩 두고 받들기를 금과옥조 같이 하였다.[60]

史部 『東國文獻備考』:

『輿地考』 중에 山川, 道里, 海防의 상세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두우, 마단림이라도 모두 미치지 못한다.[61]

『五禮儀』:

우리나라의 예법이 비록 三代에는 미치지 못하나 漢唐보다 많이 뛰어난 것은 이 책을 편찬한 것만으로도 오히려 상고하여 볼 수 있다.[62]

『大明律』:

우리나라의 법률은 한결같이 명나라를 본받았다. 지금까지 법을 의논하는 관리들은 여전히 이 책에 의거하여 판결한다.[63]

---

59) 위의 책, 4334~4335면. "清人論學問者推陸隴其, 論文者推汪琬, 論詩者推王士禛.……清之文士如吳偉業, 周亮工, 邵長蘅, 宋犖, 施閏章, 王崇簡, 方苞皆號為名家, 而朱彝尊尤稱具體. 然彝尊文弱於詩, 學術尤大謬, 其集不足觀也." 史部 '藝文'에 수록된 『經義考』下에서는 "彝尊之學長於考證而無得於探索, 所論說往往與程, 朱異, 尤不滿於周, 邵."라고 하였다.

60) 위의 책, 4192면. "是書一遵『家禮』而酌以時宜, 二百年之間, 上自搢紳, 下至委巷, 家置一本, 奉之如金科玉條焉."

61) 위의 책, 4239~4240면. "至『輿地考』中山川, 道里, 海防之詳,雖杜(佑), 馬(端臨)皆不及也已."

62) 위의 책, 4241면. "我朝秉禮雖不及三代, 而過漢唐則遠甚. 繹是書者, 猶可以考見焉."

63) 위의 책, 4242면. "我朝典章一稟皇明, 至今議法之吏, 猶執此書以讞焉."

『東國地圖』:

우리나라의 지리지는 중국에 비하면 아주 소략하지만, 그림의 상세함은 간혹 더 나은 것도 있다.[64]

子部 儒家類 眞德秀의 『心經』, 『政經』:

『心經』이 우리나라에서 번성하게 된 것은 문순공 이황이 이를 칭송한 뒤의 일로, 마침내 『近思錄』과 함께 병칭된 것이다. 중국사람 가운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65]

兵家類 戚繼光 『紀効新書』:

선조조에 천금으로 제독 이여송의 군대에서 『新書』를 구입하여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어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하였다. 이를 통해 드디어 훈련도감을 세웠다.[66]

集部 『文苑黼黻』:

우리나라의 시와 문장이 모두 중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륙변려문은 간혹 더 낫다. 대개 종묘, 조정, 국사, 나라의 중대한 일에 모두 이 문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67]

위와 같은 것들은 오늘의 중한 문화 비교 연구에 있어서 의미도 있다. 홍석주는 또한 간단하게 조선서적의 중국과 일본에서의 유통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子部 儒家類 『退陶言行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이황의 학문은 한결같이 주자를 따른다. …… 수백 년이 지나도 우리나라에서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퇴계의 가르침을 깊이 존경하는데 異論이 없고, 해외 일본에 이르러서도 그 책을 판각하여 주자의 정통을 계승한 것으로 여긴다.[68]

---

64) 위의 책, 4247면. "我國地志比中華甚疏略, 而圖之詳密則或過之.".

65) 위의 책, 4261면. "『心經』行於我國, 得李文純公表章之, 遂與 『近思錄』 並稱, 中國之人知之者固鮮矣."

66) 위의 책, 4281면. "本朝宣廟時以千金購 『新書』 於李提督如松軍中, 得練士法, 募兵以肄之, 遂立訓鍊都監."

67) 위의 책, 4323~4324면. "我東詩文俱不及中國,而四六之文則往往過之. 蓋宗廟朝廷軍國之大事, 咸以是為用矣."

68) 위의 책, 4265~4266면. "生(괄자주:李滉)之學, 一宗朱子.……而數百年來,環海邦愚智小大, 翕然尊之無異辭, 以至海外日本亦刻其書, 以為繼朱子之統."

醫家類『東醫寶鑑』: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집마다 한부씩 두고 四書三經과 함께 아울러 소장하였다. 중국의 문사도 왕왕 이를 전수하고 배웠다.[69]

만일 일본과 중국의 서적을 상호 참조한다면, 상술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은 중국을 통해 西學을 인지하였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는 서학의 번역서와 소개서의 유입이다. 『규장총목』의 子部 "曆籌(算)類"[70]를 보면 수록된 9종의 책은 北周 周甄鸞의 『五經籌(算)術』을 제외하면 나머지 8종 모두 명나라 말기에 전래된 서학저술로, 해제에서는 대개 객관적인 의론이 많다. 홍석주의 서목에서의 "數家"와 "天文家"에도 서학책 몇 종을 수록하였다. "數家"에서의 『同文籌(算)指』, 『幾何原本』, "天文家"에 속한 『新法籌(算)書』, 『曆象考成』 및 『後編』, 『儀象考成』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홍석주의 비평은 다른 측면에서 서학에 대한 당시 사대부들의 태도를 반영한다.

>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역법을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변하였다. 이 책은 그 방법을 부연하여 저술한 것이다. 대개 서양의 학문이 본디 요사스럽지만 계산하는 세밀함은 중국이 그보다 못하다.[71]

그의 서양학술에 대한 입장은 "그 기술은 중시하되 그 학문은 무시한다." 는 말로 개괄할 수 있다. 홍석주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고대에 曆書가 만들어진 후 모두 오래지 않아 오차가 생겼다. 비록 李淳風, 一行, 王朴, 郭守敬의 정밀함으로도 그 오류를 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시헌법은 행해진 지 거의 200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식, 월식 및 한 달의 시간에 단 1도의 오차도 없게 되었다.[72]

이런 바 "時憲法"은 서양의 推步法을 기초로 만든 새로운 역법이다. 명말 숭정

69) 위의 책, 4278면. "東國人咸家置一部, 與『四書』, "三經" 並珍. 中州之士, 亦往往傳習焉."

70) 正祖代 文獻 중에 자주 "算"字를 "籌"로 표시하였다. 이것은 正祖의 이름인 "祘"을 避諱하려고 한 것이다.

71) 『서목총간』 제8책, 4292면. "自西洋人入中國, 而曆籌(算)之法大變, 是書(『同文算指』)亦演其術而作. 蓋西洋之學固邪, 而推步之密, 則中國所不及也."

72) 위의 책, 4294면. "前代修曆, 率不久而差, 雖李淳風, 一行, 王朴, 郭守敬之精且密, 而不能免焉. 惟時憲法行之幾二百年矣, 而交蝕晦朔不差一度."

연간부터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공식으로 시행된 것은 청나라 강희 초년이었다. 홍석주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홍석주 뒤로 華西 李恒老(1792-1868)와 비교된다. 이항로는 『闢邪隧錄辨』에서 이른바 '邪'의 범위를 학문의 이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것에서도 상정하였다. 가령, "서양의 역법은 요임금 때의 역법과 같이 비교할 수 없다.", "서양의 의약은 염제 때의 의약과 비교할 수 없다.", "天道經緯說", "地勢順逆說", "四海大統說" 등이 그것이다.[73] 반면에 홍석주의 학설은 약간은 절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설명해야 할 것은 홍석주의 태도가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徐浩修가 편찬한 『규장총목』에서도 비록 전체적으로는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渾蓋通憲圖說』을 평할 때에는 "실로 의상의 신묘한 변화와 묘한 응용이다"[74]고 하였고, 『의상지』를 평할 때에도 "도표술수는 모두 정밀하다"[75]고 하였다. 이미 홍석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호수의 저술 『渾蓋通憲圖說集箋』에는 북경에 연행가 있을 때 옹방강과 나눈 필담이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 옹방강은 『春秋四家朔閏表』를 편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옹방강은 杜預와 一行의 역법 차이를 언급했는데, 서호수는 이에 대하여 "서양의 새로운 역법은 중국 고대 역법과 절대 같지 않다"고 하고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였다.

> 『西洋曆指』 속에는 『古今交食考』가 있어서 春秋 이래의 閏을 두는 것과 일식과 월식 측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 기재하였으며, 『欽定曆象考』의 月離篇에는 晦, 朔, 弦, 望이 그렇게 되는 까닭을 밝혔으니, 그 두 가지 책을 참조한다면 元凱, 一行의 잘못을 정정하는 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76]

이른바 "西洋曆指"는 徐光啓의 『西洋新法曆書』이다. 『규장총목』의 曆籌類에 수록되어 있다. 서호수는 홍석주 외조부 徐迥修와 사촌 관계였기 때문에 홍석주의 서양역법에 대한 입장에도 일련의 학술적 연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李仁榮의 『淸芬室書目』은 전형적인 현대 서지학 저작이다. 그가 참고한 프랑스와 일본 및 중국 사람이 편찬한 조선서적에 대해 기록된 서목은 다음과 같다. 具蘭(Mourice Courant)의 『朝鮮書誌』, 日本朝鮮總督府編의 『朝鮮圖書解題』, 『朝鮮古

73) 『華西集』 권25(『문집총간』 제305책, 163~164면) 참조.
74) 『서목총간』 제1책, 208면. "實儀象之神變妙用也"
75) 위의 책, 210면. "圖表術數俱極精密"
76) 徐浩修, 『燕行紀』(林基中 편, 2001 『燕行錄全集』 第51冊, 東國大學校出版部, 218면), "西洋曆指中有『古今交食考』, 詳載春秋以來置閏測食之失 ; 『欽定曆象考成·月離篇』, 詳著晦朔弦望之所以然. 參驗二書, 則似有益於訂正元凱, 一行之誤矣."

圖書目錄』, 森立之의 『經籍訪古志』, 『圖書寮漢籍善本書目』, 『內閣文庫圖書目錄』, 『尊經閣文庫漢籍分類目錄』, 『蓬左文庫朝鮮本目錄』, 『東洋文庫朝鮮本分類目錄』, 『成簣堂善本書目』, 淸나라 楊守敬의 『留眞譜』, 『日本訪書志』. 1937년에서 1942년 사이에 이인영은 조선의 고도서를 수집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비밀 서적은 없지만, 이로써 옛날 문화의 한 조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77]라 하였다.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인영이 고서를 수집한 데에는 조선의 고대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이 책은 서지학 저작의 요구에 따라 상세하게 책 이름, 권수, 책수, 판본, 판식, 인장 등을 기록하였다. 또한 역사자료나 序跋에 근거하여 작자나 서적의 간행경과 및 장서가의 사적을 설명하였다. 대략 9권으로 나누었는데 권1, 2는 "임진년 이전의 각본과 초본, 조선인찬술", 권3, 4는 "임진년 이전의 각본과 초본, 외국인 찬술", 권5는 "임진년 이전의 활자본, 조선인 찬술", 권6, 7은 "임진년 이전의 활자본, 외국인 찬술", 권8, 9는 "임진년 이후의 간본과 초본, 조선인 찬술"이다. 이른바 "임진"은 즉 임진왜란의 1592년이다. 이 "왜란" 때문에 조선의 많은 고서적(중국과 조선의 각본과 초본을 포함)이 일본에 약탈당했다. 비록 이 또한 한문 서적 교류의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문명을 훼손하는 것이다. 책에서 언급한 "외인찬술"은 바로 중국인의 저작을 가리킨다. 이는 비록 중국인이 저술했지만, 필사나 판각은 조선인이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목록은 중국 전적의 조선에서의 流轉에 관해 아주 귀중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예를 들어, 남송 말년 蔡正孫의 시학에 관한 저작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詩林廣記』가 널리 알려졌지만, 증보하여 편찬한 다른 저작인 『唐宋千家聯珠詩格』이 조선과 일본에서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도리어 영향이 적었다. 또 그의 『陶蘇詩話』는 그의 『唐宋千家聯珠詩格序』[7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역대 문헌의 기록과 인용에서 찾아볼 수 없고, 근대 학자의 송대 시화에 관한 저작에도 관련 기록이 없다. 오로지 『청분실서목』 권4에 기록된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 한 책에서만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채정손의 『도소시화』가 현존하는 것은 다만 권1~3뿐이지만, 원래는 13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목의 말미에는 초서로 쓰인 4행의 구절이 있다.

77) 『서목총간』 제8책, 4342면. "一無驚人秘笈, 然於其中猶有略窺古文化之一端焉"

78) 蔡正孫, 『唐宋千家聯珠詩格序』(日本文化元年(1804)刊本), "正孫自『詩林廣記』, 『陶蘇詩話』二編殺青之後, 湖海吟社諸公辱不鄙而下問者蓋衆."

> 秦少游와 晁無咎 및 여러 대가들이 도연명의 시에 화답하여 차운한 시들을 모아 간행하였다. 만약 사방의 명사들도 도연명의 시에 화답한 작품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알려 주시면 차례대로 판각하여 세상에 길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正孫이 삼가 올림.[79]

이인영이 기술한 바에 근거한다면, 이 판본은 송대 간본으로 복간된 것이다.

> 卷마다 먼저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 卷之幾를 적고 다음 行에 "靖節先生陶淵明詩", 다음 行에 "東坡先生蘇軾子瞻和", 다음 行에 "潁濱先生蘇轍子由和附", 다음 行에 "後學蒙齋蔡正孫粹然補註"라 기록하였다.[80]

이로서 알 수 있는 것은 蔡正孫이 송나라 때의 和陶詩를 수집하고 간행하였으며, 그의 『화도시화』는 바로 소식 형제의 화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이다. 이 책은 오직 낙장 몇 장만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81] 만약 『청분루서목』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책의 온전한 모습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조선왕조 500여 년(1392-1910)간에 시단의 풍기도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대략 전기 200년(중종과 선조까지)은 송시를 배웠는데, 김만중(1637-1692)은 『서포만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우리나라(조선조)의 詩體가 네댓 번이나 변하였다. 초기에 勝國의 단서를 이어 단순히 소장파를 배웠고 선조조까지 오직 容齋가 집대성자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豫章, 翠軒은 300년간 일인자로 볼 수 있다. 그 후에 황정견과 진계유를 전공하는 사람 중에 정지룡, 소수신, 황정욱이 비슷한 실력을 가졌다.[82]

이와 비슷한 비평은 많다. 허균(1569-1618)은 『鶴山樵談』에서 "본조의 시학은 소식과 황정견을 위주로 한다"[83]고 했으며 李睟光(1563-1628)은 『芝峰類說』 권9에서 "우리나라 시인들은 대부분 소식과 황정견을 숭상하고 200년간에 변화 없이 같은

---

79) 『서목총간』 제8책, 4652면. "秦少游, 晁無咎及諸大家和陶詩次集見刊, 口(궐자주 : 혹은 '四'字)方名士倘有和篇, 無吝示教, 當陸續鋟梓, 以壽其傳. 正孫頓首."

80) 위의 책, 4653면.

81) 이 내용은 卞東波 君의 호의로 알게 되었다. 書影까지 제시해줘서 여기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

82) 趙鍾業 편, 1996 『韓國詩話叢編』 第5冊, 太學社, 510면(이하 『시화총편』). "本朝詩體, 不啻四五變. 國初承勝國之緖, 純學東坡, 以迄於宣靖, 惟容齋(궐자주 : 卽李荇)稱大成焉. 中間參以豫章, 則翠軒(朴誾)之才, 實三百年一人. 又轉而專攻黃, 陳, 則湖(湖峯 鄭士龍), 蘇(蘇齋 盧守愼), 芝(芝川 黃廷彧)鼎足雄峙."

83) 『시화총편』 제2책, 19면. "本朝詩學, 以蘇, 黃為主."

것만을 답습한다.[84]고 하였다. 『청분루서목』 권5의 "天下孤本"인 『祖宗詩律』 권14는 바로 위와 같은 논점의 논거로 볼 수 있다.

> 中宗과 宣祖 연간의 木活字 印本으로, 柳希齡이 편찬한 것이다. …… 卷一에서 권二까지는 天文門이고 卷三에서 권六까지는 地理門이며 卷七에서 권十四까지는 人事門이다. 먼저 두보를 一祖로 삼고 山谷, 後山, 簡齋를 三宗으로 삼았다. 또 呂紫薇, 曾茶山, 高予勉, 謝無逸, 潘邠老, 謝幼槃, 韓子蒼, 王立之, 僧如璧 등 江西詩派의 시인들을 가입하여 또 蘇子美, 周尹潛, 趙章泉, 陸放翁, 朱晦庵까지 …… 諸家의 目錄에 기록된 바가 없어서 天下孤本이라고 해도 가하지 않겠는가?[85]

이 책의 편찬과 출판은 당시 시단의 조류와 명백히 동일한 흐름에 놓여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江西詩派가 조선한문학사에 미친 영향을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조선의 개인서목은 비록 양적으로는 적지만 그 가치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나며 우리에게 있어 중시해야 할 자료라 할 것이다.

四. 史志書目

史志書目은 역사서의 한 구성 부분 중의 하나로, 조선의 "正史"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經籍志"나 "藝文志"가 붙지 않는다. 그 유일한 예외로는 李種徽(1731-1797)의 『東史』가 있다. 그 안에 「高句麗·藝文志」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극히 간략하다. 역사서의 體裁로 보면 조선의 사지서목은 모두 別史類, 紀事本末類와 政書類 등에 수록되어 있다. 비교적 중요한 자료로는 韓致奫(1765-1841)의 『海東繹史』·「藝文志」, 朴周鍾(1813-1887)의 『東國通志·藝文志』와 『增補文獻備考·藝文考』(1906년 완성) 등이 있다.

동아시아 서적교류의 시각으로 사지서목을 검토할 때에는 한가지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곧 이와 같은 서목들에는 대부분 동아시아 서적교류 역사에 관한

84) 위의 책, 285면. "我東詩人多尚蘇, 黃, 二百年間皆襲一套."

85) 『서목총간』 제8책, 4709-4710면. "中宗, 宣祖間木活字印本, 柳希齡編.……卷一至二為天文門, 卷三至六為地理門, 卷七至十四人事門. 以一祖老杜, 三宗山谷, 後山, 簡齋為主, 配以呂紫薇, 曾茶山, 高予("予"當作"子")勉, 謝無逸, 潘邠老, 謝幼槃, 韓子蒼, 王立之, 僧如璧等江西派中人, 續入蘇子美, 周尹潛, 趙章泉, 陸放翁, 朱晦庵.……諸家目錄無所著錄, 則可謂天下孤本歟?"

기록들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海東繹史』의 "經籍·總論"에서는 연대순으로 삼국의 書籍交流, 讀書풍습, 書籍수장과 藏書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또 『東國通志』「藝文志」는 『漢書·藝文志』를 본받아 總序를 통해 箕子東來부터 統一新羅와 高麗時代를 걸쳐 조선 정조시대까지의 도서소장 및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圖書交流小史'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增補文獻備考』「藝文考」에는 "歷代書籍"이란 항목이 있는데, 그 안에는 總論, 購書, 賜書, 獻書, 進書中朝 등의 세부 항목이 있고, 서적교류에 관한 기록도 존재한다. 여기서는 『增補文獻備考』「藝文考」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먼저 중국에서 조선으로 서적이 유입된 경우이다.

> 『涵虛子』에 이르기를, "箕子는 중국인 5천 명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갔는데, 시서·예·악·의술·음양·점술을 익힌 무리들이 모두 따라서 갔다."[86]

다음은 조선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경우이다.

> 百濟 古爾王 51年에 왜국으로 서적을 보냈다. 왜국에는 원래 문헌이 없었으나 이때 비로소 백제로부터 중국문자를 얻게 되었다.[87]

다음은 조선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경우이다.

> 陶穀의 『淸異錄』에 이르기를, "周世宗 때 水部卿인 韓彦卿이 고려로 使行갈 때 『博學記』라는 책을 얻어 몰래 베끼고서 삼백여 가지의 餘史를 알게 되었다. ……(安鼎福이 말하기를 "그의 말은 아주 신기한데 이른바 『博學記』라는 책은 지금은 어떤 책인지 알 수 없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은 책도 아주 많다 하겠다.")[88]

그리고 朱彝尊은 『吾妻鏡』「跋」에 이르기를,

> 외국인 중에 오직 고려 사람의 저술이 종종 중국으로 유입된다. 예컨대 鄭麟趾의 『高麗史』, 申叔舟의 『海東諸國記』 그리고 『東國通鑑』과 『史略』 등 책은 대부분 고증할 가치가 있다."[89]

---

86) 『서목총간』 제6책, 2862면. "涵虛子曰 : 箕子率中國五千人入朝鮮, 其詩, 書, 禮, 樂, 醫, 巫, 陰陽, 卜筮之流皆從往焉."

87) 위의 책, 2863면. "百濟古爾王五十一年, 遣書籍於倭國. 倭初無文獻, 至是始從百濟得中國文字."

88) 위의 책, "陶穀『淸異錄』曰 : 周世宗時, 水部卿韓彦卿使高麗, 得一書曰『博學記』, 偸抄之, 得三百餘事.……(安鼎福曰 : 其語甚新, 而所謂『博學記』, 今不知何書. 以此言之, 我東古書之不傳於本國者多矣.)"

한편 조선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책도 있다.

> 선종(宣宗) 8년에 戶部尙書 李資義와 禮部侍郎 魏繼廷 등이 송나라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황제께서 우리나라에 서적의 좋은 판본이 많음을 들으시고 館伴에게 명하여 구할 도서의 목록을 써 주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권질이 부족한 것도 반드시 베껴서 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128가지이다.[90]

아울러 중국과 일본에 가서 책을 방문하여 구하는 사람도 있다.

> 忠順王 元年에 博士 柳衍과 學諭 俞迪 등이 책을 구하러 江南으로 보내졌다. 배가 전복되어 柳衍 등이 알몸으로 상륙하였다. 判典校 洪瀹이 太子府 參軍의 신분으로 南京에서 寶鈔 一百五十錠을 柳衍에게 주었고 그로 하여금 經籍 一萬八百卷을 구입하여 돌아가게 하였다. 洪瀹이 또 상소를 올려 서적을 四千三百七十一冊 하사하기를 청하였고 성공하였다. 이 책들은 전부 송나라 秘閣의 所藏이다.[91]

영조 40년에 趙曮이 왕명을 받아 사신으로 일본에 갔다. 趙氏 姓을 가진 사람이 따라 가서 일본의 『太陶國輿書牘』이라는 책을 얻어 돌아왔다. 이 책은 그 나라의 비밀역사이다.[92]

중국 황제가 책을 하사한 기록도 많이 남아있다. 사지서목은 원래 사서에 속하고 그중 적지 않은 사료가 여러 종류의 역사 서적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기에 사지서목은 역사서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지서목의 다른 특징은 국내외의 문헌들을 폭넓게 섭렵하고 있다는 점이다. 韓致奫의 『海東繹史』에 그 사례가 있는데, 韓致奫의 증손인 韓日東이 편찬한 『玉蕤堂韓公行狀』에 의하면 "공은 장서를 매우 좋아하고 집에도 中東奇書 수천 종을 소장하고 있다."[93] "中東奇書"의 "中"은 중국이고 "東"은 조선과 일본을 가리킨다. 『해

---

89) 위의 책, 2892면. "朱彝尊『吾妻鏡跋』曰 : 外國惟高麗人著述往往流入中土, 若鄭麟趾『高麗史』, 申叔舟『海東諸國記』 以及 『東國通鑑』, 『史略』 諸書, 多可考證."

90) 위의 책, 2866면. "宣宗八年, 戶部尙書李資義, 禮部侍郎魏繼廷等還自宋, 奏曰 : 帝聞我國書籍多好本, 命館伴書所求書目授之. 仍曰 : 雖有卷第不足者, 亦須傳寫附來. 凡一百二十八種." 상관 내용은 屈萬里, 1975 「元祐六年宋朝向高麗訪求佚書問題」 『東方雜誌』復刊 第八卷 第八期, 23~26면 참조.

91) 위의 책, 2885면. "忠順王元年遣博士柳衍, 學諭俞迪等購書籍於江南, 船敗, 衍等赤身登岸. 判典校洪瀹以太子府參軍在南京以寶鈔一百五十錠遣衍, 使購經籍一萬八百卷而還. 瀹又奏元賜王書籍四千三百七十一冊, 皆宋秘閣所藏也."

92) 위의 책, 2891면. "(英祖)四十年, 趙曮奉使日本, 嶺人趙姓者隨往, 得日本『太陶國輿書牘』一本而歸, 其書卽國之秘史."

93) 『海東繹史』 附(『韓國史書叢刊』4, 韓國驪江出版社, 1987, 528면), "公甚愛蓄書, 家藏中東奇書數千種."

동역사』 제1권에는 "引用書目"이 있다. 그 중에 중국문헌은 523종이고, 일본문헌은 22종이며, 인용된 대량의 조선 문헌은 기록하지 않았다. 아마 자국인으로서 잘 알고 있기에 생략한 듯하다. 곧 "인용서목"을 통해 어떤 책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 중 먼저 일본문헌을 살펴보자.

> 『孝經凡例』(藤益根), 『日本書紀』, 『日本記』(安麻呂), 『續日本紀』(菅野朝臣眞道), 『日本逸史』, 『日本三代實錄』(大藏善行), 『日本文德實錄』(都良香), 『帝王編年集成』, 『類聚日本國史』, 『和漢三才圖會』(良安尙順), 『異補日本傳』(松下見林), 『武林傳』, 『征伐記』, 『毛利氏家記』(毛利大藏), 『維摩會緣起』, 『時學鍼灸』(高志), 『白石餘稿』(室直淸), 『徂徠集』(物茂卿), 『南浦文集』, 『蓬島遺珠』(晁文淵), 『日本名家詩選』(藤原昻), 『客館筆談』(木實聞)

『東國通志』「藝文志」도 소량의 일본문헌을 인용하였다. 예를 들면 『和漢三才圖會』, 『吾妻鏡』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들은 한일 양국의 서적교류 정보라 할 수 있다.

서적의 유통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헌에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 그 중에는 잘못된 것도 적지 않은데 사지서목에서는 종종 이에 대해 고증을 남기기도 하였다. 가령, 고려와 일본에 "百篇 『尙書』"가 있다는 기록에 대해 한치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송나라 사람들이 매양 중국에서 이미 실전된 백편의 『尙書』가 혹시 고려에 있지 않은가 의심하였다. 더불어 구양수의 『日本刀歌』로 인하여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구하였다. 元世祖가 高麗世子에게 문의하였고 명나라 만력 연간에는 葉春及이 상소를 올려 왜국의 사신을 책봉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고자 하였다. 청나라 강희 초년에는 漳浦의 廩生인 蔡某가 상소를 올려 해외의 『古文尙書』를 구하고자 청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 책은 실제로 고려와 일본에는 없는 것들이다. 顧炎武가 이를 이미 지적하였고 朱彝尊과 閻若據 등도 상세히 언급하였다. 本朝의 申維翰이 일본에 가 있을 때에 雨森東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한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에는 『고문상서』의 眞本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천 년이 되어서도 그 책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雨森東이 말하길, "구양수도 말한 적이 있듯이, 그러한 의심은 전부 이치상 부합되지 않습니다. 성현의 經傳은 하늘과 땅 사이의 지극한 보물로, 귀신이라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古文尙書』가 만약 일본에 존재한다면 혹 魯壁이나 舫頭에서라도 나타날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섬나라지만, 일본에 있다면 절로 나타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

였다. 乾隆 癸未년에 원중거가 통신사의 書記로 일본에 가서 일본 유학자 龜井魯에게 徐福이 古文 六經을 가지고 왔냐고 질문하였다. 龜井魯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저도 구양수의 『日本刀歌』를 읽어봤는데 일본에는 이 책이 없습니다. 더불어 일본의 풍속이 스스로 자랑하는 경향이 있어서 귀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지 오래 되어 국가에서의 금지령이 있어도 알려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 육경의 귀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만약 알게 되었으면 천하의 만국과 같이 共有해야지요. 귀중함을 모르면 어찌 비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록을 보면 고려와 일본에 『古文尙書』가 없음을 알 수 있고 족히 천고의 疑案을 訂正할 수 있을 것이다.[94]

위와 같이 변증하는 내용은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오늘날 동아시아 한문 서적의 교류 연구에 있어서도 계발하는 바가 풍부하다 하겠다.

주제어 : 한문서적교류, 장서목록, 왕실서목, 지방서목, 개인서목, 史志書目

투고일(2010. 9. 10), 심사시작일(2010. 9. 11), 심사완료일(2010. 9. 27)

94) 『서목총간』 제5책, 2477~ 2479면. "宋人每疑高麗有百篇 『尙書』 者, 以中國無傳也, 且因歐陽公 『日本刀歌』, 至求之海外. 以至元世祖問於高麗世子, 明萬曆中葉絅齋春及上疏請命封倭使臣多方索之. 淸康熙初, 漳浦學廣生蔡某又上疏, 請徵海外 『古文尙書』, 而竟未有得. 然其實高麗, 日本亦無有也. 顧亭林已言之, 朱竹垞, 閻潛邱諸人又言之詳矣. 本朝申靑泉維翰之入日本也, 問雨森東曰 : "聞日本有古文眞本, 至今數千年, 其書不出於天下, 何也?"東曰 : "歐陽子亦有所言, 皆不近理. 聖賢經傳自是天地間至寶, 鬼神之所不能秘. 故 『古文尙書』或出於魯壁, 或見於舫頭, 日本雖在海中, 自有不得不出之理." 乾隆癸未, 元玄川重擧爲信使書記, 問倭儒龜井魯曰 : "古文六經徐市載來否?"答曰 : "僕亦見歐陽公 『日本刀歌』, 然本國無此事. 且國俗好誇矜, 與貴國通使久矣, 假使國有禁, 必無不洩之理. 且國中今日尙不能眞知六經之貴, 如知其貴, 當與天下萬國共之. 如不知貴, 何必秘之禁之?"觀之則可知高麗, 日本並無 『古文尙書』, 足可訂千古疑案."

<Abstract>

The Book Exchanges and Trades Seen from the Bibliographies of Chosun Dynasty

Zhang, Bowei *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book exchanges and trades among East Asian counties based on bibliographies complied in Chosun Dynasty. The bibliographies complied in Chosun Dynasty includes four categories: imperial bibliography, regional bibliography, private bibliography, and bibliography in official history, which reflect different perspectives of book and cultural exchanges in East Asiain premodern period. For example, we can have overall survey of collections in the imperial library of Chosun Dynasty, and how Chosun literatibrought books from China step by step, and the book exchanges among Korea, Japan and Vietnam at that time. Regional bibliography consists of the bibliography of printing blocks preserved in provincial governments and bibliographies of local schools, academia, and temples. The bibliography of printing blocks can tell us the reprinting of Chinese books in different regions of Korea, which reflects the popularity of Chinese books in local level. The academia in Korea not only has great collections of books, but prints books also, and served the function of distributing books written in Chinese. Though the private bibliography did not has huge collections, it has annotated notes to the book, from which we can see the size of collections, basic cultivation, and intellectual structures of literati family in Chosun Dynasty, furthermore, we can learn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i and Chinese Classics from it. Bibliography in official history mainly extracts from documents within and outside Korea, and sets forth the history of book exchanges in East Asian community.

Key Words : the book exchanges and trades, imperial bibliography, regional bibliography, private bibliography, bibliography in official history

* Professor of School of Liberal Arts, Head of Institute for the Study of Asian Classics in Chinese, Nanjing University